

國語 敬語法의 本質的 意味

姜 昶 錫

- I. 머릿말
 - II. 잘못된 견해들
 - III. 통합될 수 없는 세 文法範疇
 - IV. 너무나 간단한 결론
1. <上位性>의 表示

I. 머릿말

國語의 敬語法現象¹⁾은 文法現象이면서 동시에 倫理規範의 성격 을 가지는 때문인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으며²⁾ 현재도 논의가 끊이지 않는 주제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또 하나의 言及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작금의 敬어법에 대한 논의 방향이나 결론들에서 수증하기 어려운 몇가지 근본적인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文法現象으로서의 敬語法이 과연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현상이냐 하는 점과 또한 수많은 논의의 결과로 敬어법 현상의 전모가 명쾌하게 밝혀졌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敬어법이 文法現象인 이상 그것은 결코 수많은 논란이 필요할 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현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言衆들의 상식적인 論理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文法現象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논리로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敬語法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現象보다도 그것을 다루고 있는 논의들의 論題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문

1) 우리가 敬어법이란 用語를 사용하는 것은, '敬語法'이라는 하나의 文法範疇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까지 '敬어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현상들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본 논의의 입장은 오히려 '敬어법'이라는 하나의 문법범주는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敬어법에 관한 논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많은 논저들에서 이미 그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다.

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간단하고 상식적인 현상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연구자들이 잘못된 先入見이나 前提를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애당초 성립되지도 않고 논의할 필요도 없는 문제를 과제로 설정하거나 전제로 삼음으로써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끝내는 現象의 본질까지를 왜곡시키는 악순환을 흔히 초래한다.³⁾ 본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경어법의 경우도 출발점에서의 사소한 착각이 수정되지 않고 점차 不動의 전제로 굳어짐으로써 연구의 방향이나 결론이 사실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래 (1)의 여러 현상들을 敬語法(존대법, 대우법)이라는 하나의 문법범주로 묶는(묶으려는)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 (1) ① 가다 : 가시다
 ② 주다 : 드리다
 ③ 가라 : 가게 : 가십시오

주지 하듯이 文法現象이란 “일정한 意味(內容)가 일정한 形式的 節次로” 실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1)의 ①②③의 경우는 각각의 意味나 形式에서 엄연히 다르다. ①②③의 각 意味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한 문법범주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은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가진다는⁴⁾ 상식만으로도 (1)의 세 경우가 한 문법범주로 묶일 수 없음은 自明하다. “드리십시오”에서 보듯이 ①②③의 경우는 서로 배타적인 분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들이 막연히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전제하거나 그것을 指向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이미 큰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 이론바 경어법 현상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의 目的은 국어의 경어법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는 잘못된 전제나 虛構의 論題들을 찾아 비판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장에서는, 작금의 논의들에서 간과되고 있는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

3) 이런 현상은 西歐語 文法の 論題나 理論들을 무비판적으로 借用한 논의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4) 예를 들어, ‘시제’라는 범주를 구성하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共存할 수는 없으며, ‘사동’, ‘피동’의 경우도 배타적인 分布를 보임으로써 ‘態’라는 하나의 文法 범주로 成立될 수 있다.

고, 잘못된 출발에서 새로운 오류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양상을 확
인한다. Ⅲ장의 내용은, Ⅱ장에서의 비판에 대한 대안의 제시로서, 이른바
경어법의 내용이나 論理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을 밝히게 된다. Ⅳ장에서
는, Ⅲ장에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의 접근을 시도한
다. 즉 <上位者> 혹은 <上位性>의 具體的인 意味를 추적해 본다.

본고에서 내세울만한 새로운 方法論은 전혀 없다. 다만, 文法研究에서의
일반적인 原則들을 분명하고 일관성있게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國語는 흔히 말하듯이 교착어로서 대부분의 文法現象(범주)이 특정 형태
소의 첨가로 실현되고, 경어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경어법을 비
롯한 국어의 모든 문법논의가 해당 文法形態素들의 意味機能을 제대로 밝히
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함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경우든지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통해 意味가 파악되어
야 한다는 점과 파악된 내용은 概念이 분명하고 정확한 用語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概念조차 불투명한 用語를 등장시키는 기술은 아무런 의미
가 없는 것이며, 결국 現象에 대한 理解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
러내는 것이다.⁵⁾

II. 잘못된 전제들

1. 사소한 착각 : <높음>과 <높임>

결코 난해하거나 복잡할 수 없는 文法現象으로서의 敬語法에 많은 논란
을 야기시킨 오류의 과정을 추적해 보자. 우선 異說이 많은 이른바 “청자
경어법의 등급설정” 문제를 생각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청자경어법의 경우 3등급에서 6등급에 이르기까지

5) 어떤 문법범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言衆이 그 범주를 분명하게 認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言衆이 어떤 범주나 概念을 분명하게 認識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實在하는 문법현상의 記述에서 用語 때문에 고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기존 단어의 본래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用語設定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主語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임자말’이 아니라면 굳이 이 用
語를 쓸 필요가 없으며, 主語의 진짜 개념이 불투명하다면 애당초 ‘主語’라는 用語가 등장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主語’라는 新造用語는 단지 영어 등에서의 ‘Subject’를 적역한 것에 불
과하다.

등급설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처럼 등급수에 異論이 분분하고, 모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몇 등급이 옳으나 이전에 등급설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虛構의 論題이기 때문이다.

등급을 논하자면 우선 등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의 등급인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등급 설정은 주로 “높이는 정도”에 대한 등급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른바 청자경어법은 물론 다른 경어법의 의미도 결코 “누구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Ⅲ장에서 자세히 논의함) 따라서 애당초 높이는 의미가 아닌데 거기에 높임의 등급이 있을 수 없으며, 더우기 몇 등급이 옳으나 하는 문제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이제 언급한 이른바 청자경어법의 등급수 문제등 그동안 경어법 논의에서 잘못된 많은 難題를 야기시킨 근본 원인은 바로 “경어법” 혹은 “경어”라는 것이 “누구를 높이는 법칙” “높이는 말” 등으로 잘못 이해되고 전제된 점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國語文法研究의 첫 출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文法形態素들의 意味 파악에서부터 사소한 착각이 있었고, 그것이 검증되지 않으므로써 잘못된 論理들이 연쇄적으로 파생되고 허구의 논제들이 만들어졌으며, 허구의 논제들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수록 본질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경어=높이는 말”에서의 오류를 검증해 보자.

‘높임’이라는 것은 ‘높지 않은’ 것을 ‘높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소위 경어라는 것은 높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높음이 인정된 사람에게 쓰이는 경어의 의미가 <높임>이 될 수는 없다. 즉 부모나 스승은 경어를 사용함으로써 높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높은 것을 높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높임’이라고 애매하게 記述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의 경어법 논의들에서, ‘-시’, ‘-습’, ‘-요’, ‘-읍니다’ 등의 여러 형태소들의 意味를 일괄적으로 ‘높임’, ‘높이는 대우’ 등으로 애매하게 이해함으로써 연쇄적으로 파생된 오류는 적지 않다.

(2) '높임'에서 파생된 오류들

- ① 국어에는 누구를 높이는 말과 높이는 법칙들이 있다→경어법이라는 하나의 범주 설정
- ② 세가지 대상을 구별하여 높인다→주체(객체, 청자)경어법
- ③ 주체=청자, 객체=청자 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높임이 중복된다.
- ④ 높/낮이의 등급은 주체나 객체의 경우에는 二分되어 있고, 청자의 경우에는 多分되어 있다.
- ⑤ '주체경양=객체높임'이라는 시이소오論理

※⑥ 國語의 다른 문법현상의 경우와는 다른 用語나 論理 등장

(2)와 같은 오류들은 사실 경어 혹은 해당 형태소들의 意味를 제대로 파악했다라면 전혀 생겨날 수 없는 것들이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지극히 어색한 논리들이 분명하다. 문제는 애매한 전제에서 어색한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잠시 생각을 되돌려 애초의 전제를 의심하거나 수정하려 하지않고 잘못된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 앞으로만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2. 끝어진 오류

(2)의 오류들 중에서 특히 분명하게 비판되어야 할 것은 ⑥의 경우 즉 경어법과 다른 문법현상에서의 論理가 전혀 다르다는 점과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⁶⁾ '경어법'과 '피/사동법'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 (3) ① ㉠ 칠수가 영희에게 입힌다. <피동>
 ㉡ 칠수가 영희에게 웃을 입힌다. <사동>
- ② ㉢ 아버님께서 오신다 <주체경어법>
 ㉣ 어머님께 드린다 <객체경어법>
 어머님을 뵈다 <객체경어법>

국어의 피동법이나 사동법은 ①의 예에서 보듯이 <사동성>, <피동성>을 표시해 주는 형식적 규칙성 즉 /-히-/라는 특정 형태소의 첨가를 근거로 해서 성립된다. 즉 일정한 意味와 그것을 나타내 주는 형식에서의 규칙성을 근거로 문법범주로 성립되는 것이다.

6) 경어법만은 社會言語學이나 話用論이니 하는 특수한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으며, "一般 文法으로는 맞는데 경어법이 틀려 非文이 된다"하는 식의 이상한 기술로 흔히 등장한다.

注目할 것은, ①에서의 <피동성>이 누구의 <피동성>이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저술어에 나타난 <피동성>은 동작에서의 <피동성>이요, 그것은 결국 동작 주체의 <피동성>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①의 ㉠에서의 ‘-히’의 意味를 <피동성>이 아닌 <능동성>으로 본다거나, ‘주체피동=객체능동’의 논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없다. “화자가 主體를 피동적인 인간으로 대우한다”는 기술이나 ‘피동대우법’이라는 用語도 물론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②와 같은 이른바 경어법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①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여러가지 주장들이 나타난다.

우선, ‘가다/가시다’와 ‘주다/드리다’의 경우는 意味는 물론 형식적인 면에서도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들을 경어법(존대법, 대우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 한다. 이것은 물론 ‘-시-’나 ‘드리-’ 등에 대한 의미파악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결과 ‘主體’ ‘客體’ ‘聽者’(相對) 등의 접두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피동법 등 다른 문법현상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누구의>, <누구에 대한> 등의 문제가 논의되며, ‘주체접양=객체존대’라는 이른바 시이소오 논리도 등장한다. 또한 “화자가 주체를 상위자로 대우한다”는 식의 기술과 함께 ‘대우법’이라는 用語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경어법의 경우에만 독특한 변칙논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물론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각각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시-’, ‘-히니다’, ‘-요’ ‘드리-’ 등의 의미를 모두 <높임>으로 착각한 때문이지만, 그 다른 논리들이 쉽게 시정되지 못하는 것은, 쫓점이 빛나가고 잘못된 결론들을 통해 ‘경어법은 다른 문법현상과는 다르다’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식의 편견까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결론들이 자꾸 생겨나는 惡循環이다.

사실, 경어법의 경우에도 각 형태소나 단어들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면 문법현상으로서의 성격이 피, 사동법 등 다른 문법현상의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가 동작(주체)의 <上位性>을 나타내고, ‘-습-’이나 ‘드리-’가 동작(주체)의 <공손성>을 나타낸다고 보

면”, 그것은 ‘-히-’가 동작(주체)의 <피동성>을 표시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으며, ‘가요, 가십니다’에서의 ‘-요’나 ‘-히니다’가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공손성>(진술에서의)을 뜻한다고 보면, 그것은 ‘가느냐’에서 ‘-느냐’가 화자의 청자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것과 역시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따라서 ‘주체피동법’ ‘청자의문법’이 아니고 ‘피동법’ ‘의문법’으로 족하다면, 그것은 경어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존칭법’, ‘공손법’이면 족하다는 것이며, 또한 ‘피동대우법’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존칭법 등을 ‘대우법’이라 부르는 것도 역시 적절치 못하다.

이처럼 각각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된 경어법의 경우, 그것은 다른 문법현상과 다른 論理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법현상과의 同質性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어 문법의 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경어법과 다른 문법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는 국어문법의 한 특징이란 예컨대 ‘-시-’, ‘-습’, ‘-히’ 등 用言의 先語末 위치에 나타나는 文法形態素들의 의미는 ‘동작(주체)의 한 특징’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고, ‘-요’, ‘-느냐’, ‘-히니다’ ‘-다’ 등 語末 위치에 나타나는 형태소들의 의미는 모두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까지 지적한 것처럼, 작금의 경어법에 관한 논의들이 몇가지 근본적인 오류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경어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마땅히 근본적인 오류부터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논의는 결국 어디에선가 문제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새로운 논리를 끌어들이며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출발점에 문제가 없는 지 되돌아 보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결론을 얻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경어법을 비롯한 국어 문법현상의 주 연구과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文法形態素들의 意味, 機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이제 이른바 경어법에 관련된 각 형태소나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해 보자.

7)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Ⅲ. 통합될 수 없는 세 文法範疇

1. 〈上位性〉의 表示

가. ‘-시-’의 意味

用言의 선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시-’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가?

‘-시-’의 의미기능을 추출하기 위해 ‘-시-’가 나타난 자료를 대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모든 用例에서의 ‘-시-’가 同一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그것은 ‘-시-’가 나타나는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自明한 사실이다. 다음 예를 보자.

- (4) ① 아버지님, 이리 오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② 김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교장선생이 연하의 평교사에게)
 ②' 김선생, 이리 와요.

①의 경우는 분명 아버지라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시-’가 사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의 ‘-시-’는 一方的으로만 쓰이는 것이며 用法에 거의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②의 경우는 교장선생이 연하의 평교사가 자기보다 높다고 인정하여 ‘-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대로 평교사가 교장선생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즉 ②의 경우는 對話에서 상호 ‘-시-’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②'의 예처럼 ‘-시-’의 사용 여부에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의 정확한 의미, 기능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①과 ②의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모님’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실제 용례를 생각해 보면, ①, ②와 같은 구분의 필요성이나 구분 후의 논의 순서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즉 ‘사모님’은 본래 스승의 부인을 뜻(칭)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스승의 부인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사모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했다고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왜 의미가 변했는지, 그 변화의 논리는 무엇인지 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의 경우처럼 실제 용례를 일괄적으로 다룰 수 없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①과 ②를 구별하는 것은 ②의 경우를 논의에서 배제하거나, 誤用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의미 모두와 그 사이의 변형과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먼저 ①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시-’의 의미나 기능을 생각해 보자.

‘-시-’는 나타나는 위치가 用言의 어간 뒤(선어말위치)로 엄격히 고정되어 있다. ‘-시-’가 용언의 어간뒤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뜻하는 내용이 어간이 나타내는 동작⁸⁾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작 주체와 관련된 그 무엇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시-’가 상위자의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쓰인다면 상위자의 동작에 관한 한 특징(비상위자의 동작에는 없는)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경우에는 상위자의 동작에만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열른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필경 ‘상위자’ 곧 <上位性>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터인데, 현대국어 즉 현대 한국인의 의식체계에는 <上位性>의 구체적인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현대국어의 경우에는 ‘-시-’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단순히 동작의 주체가 上位者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¹⁰⁾

‘-시-’가 동작 주체의 <上位性>을 표시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흔히 ‘-시-’의 의미라고 지적되는 <높임>이나 <존대> <존경> 등은 <上位性>과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기실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며, 따라서 ‘-시-’의 의미나 기능을 기술하는 용어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즉 <上位性>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작 주체의 객관적인 자질이고 화자는 단지 그것을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높임>이나 <존경> 등은 동작주체의 자질이 아니라 화자의 意圖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특징을 화

8) 흔히 말하는 ‘상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9) ‘부모’나 ‘스승’ 등은 上位者라는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점이 上位者로 결정하는 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10) 이것은 마치 영어에서 主語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끝에 /-S/가 결합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시-’가 본래부터 그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시-’도 본래는 어간이 뜻하는 동작과 관련된 고유의 意味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意味도 매강 주정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자가 표현한다는 것과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여러 면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증해 보자.

첫째, ‘높임’의 경우는, Ⅱ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높지 않은’ 것을 ‘높게’ 만든다는 뜻이므로, 이미 높음이 인정된 사람에게 쓰이는 말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¹¹⁾

둘째, ‘-시-’를 사용하는 화자의 의식에 항상 <존경>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여, 뭇 사람에게 ‘-시-’를 사용치 않으면 失禮가 되고, 상대는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낸다면, 우리는 이것을 존경하지 않아서 실례가 되고, 존경받지 못해서 모욕을 느낀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보다는 객관적으로 상위자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실례가 되고 상대는 모욕을 느낀다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셋째, 主體가 화자보다 상위자일 경우라도 더욱 상위자인 청자 앞에서는 ‘-시-’를 사용치 않는 경우가 있다.

(5) ① 아버지님, 형이 왔습니다.

*형님 오셨습니다.

② 어머니님, 김서망이 왔습니다.

*김서망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약 ‘-시-’가 <높임>이나 <존경>을 표시한다면 (5)의 예는 부모 앞에서 형이나 남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러한 논리는 아주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시-’가 단순히 <上位性>을 표시한다고 보면 (5)와 같은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5)의 論理는

평소에는 부부나 형제 사이에 上/下의 구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그것이 무시된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들 형제나 부부가 同級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견 당연한 것이다. 이 경우는 결국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도 어머니를 상위자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다.

대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대개 話者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11) 일반 언중들에게 흔히 쓰이는 “높인다”는 말도 엄밀히 “말을 높인다”(낮은 말에서 높은 말로)는 것이지, 對象의 신분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만 국어에서는 人物에 대한 표현의 경우 화자 자신이 아닌 청자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6) ① (너의) 어머니 어디 가셨니? (아들에게)

* (내) 부인 어디 갔니?

② 애비 왔어요. (시부모 앞에서)

* 남편 왔어요.

③ (백의) 친구분 만나러 가십니까?

(6)의 예처럼, 부모에게 말할 때 형이나 남편을 청자인 부모 입장에서, 同級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¹²⁾

넷째, 어간(계시-, 주무시-)이나 전어말어미에 ‘존경’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서범어미등 화자의 意圖를 나타내 주는 요소들은 語末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 몇가지 검증을 통해, ‘-시-’의 意味는 <높임>이나 <존경>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주체의 <上位性>을 나타내 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命名하든간에 ‘主體’라는 말이 앞에 덧붙을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主體아닌 다른 사람의 <上位性>이 용언에 표시되는 경우는 없으며, 체언의 경우에는 접사 ‘-님’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님’의 경우는 주체, 청자, 객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서 보류해 놓았던 (4)의 ② 즉 상호간에 ‘-시-’가 사용되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먼저, 연하의 평교사가 교장선생에게 사용하는 ‘-시-’의 의미는 ①의 경우와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로 교장선생이 연하의 평교사에게 사용하는 ‘-시-’의 의미인데, 이 경우는 ①에서의 의미가 약간 변형된 즉 <上位性>이 아닌 <非下位性>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 변형의 과정을 추적해 본다면, ‘-시-’를 요구한 <上位性>의 개념에서 반대 개념인 <下位性>이 생겨나고, 따라서 ‘-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下位者로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12) 문제는 화자, 청자, 주체 사이에 모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즉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대해 말할 때 ‘-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아주 혼란되는 경우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시-’의 의미가능성이 경우는 ‘-시-’를 쓰는 편이 옳다고 생각된다.

下位者가 아니라는 뜻으로 ‘-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인 신분성은 본래 ‘上/非上’이었는데 ‘非上’의 경우가 다시 ‘下’와 ‘非下’로 나뉘어져 三分化되고, 언어적 표현은 여전히 2가지 뿐이므로 ‘非上’이면서 ‘非下’인 경우 ‘-시-’가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최소’의 정도나 ‘격식’의 여부가 작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시-’가 현대국어의 용례에서 <上位性>과 <非下位性>의 두 가지 의미를 쓰인다고 해도 그중 본질적인 의미는 <上位性>의 경우임이 분명하다.¹³⁾

그러나 <上位性> 즉 <높음>이라는 것도 ‘-시-’ 본래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가 用言에 결합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上位性>이라는 것이 용언 어간이 나타내는 동작의 한 특징은 아니기 때문이다. 人物 자체의 <上位性>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는 用言보다는 體言에 직접 나타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실제 體言에 <上位性>을 표시해 주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제 體言에 결합되어 <上位性>을 표시해 주는 ‘-님’의 경우를 살펴 보자.

나. ‘-님’의 意味

명사어에 붙는 ‘-님’도 대체로 화자가 자기보다 上位의 人物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님’은 또한 선행 명사가 지칭하는 人物이 문장 내에서 주체든 객체든 혹은 칭자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난다. ‘-님’이야말로 진정 선행명사가 지칭하는 인물이 상위자임을 나타내 주는 수단이라 생각된다.¹⁴⁾ 명사에 붙는 접사는 결국 명사가 뜻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上位性>이라는 것은 결국 명사가 뜻하는 존재 자체의 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님’의 경우에도 <높임>이나 <존경>의 의미가 될 수 없음은 ‘-시-’와 같은 논리로 검증될 수 있다. ‘-님’이나 ‘-시-’의 사용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위자라 하여도 친족명칭인 경우에는 호칭에서도 ‘-님’이 대체로 생략될 수 있으나(아버지, 할머니, 이모 등) 대장님

13) 상호 ‘-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신분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결국 상호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된다.

14) 물론 上位者가 아닌데도 ‘非下位者’라는 의미로 ‘-님’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나 과장님등의 경우에는 호칭에서 ‘-님’이 생략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현상의 해석에서도 ‘-님’이 만약 ‘높임’이나 ‘존경’의 뜻이라면 유독 친족에 대해서만 ‘높임’이나 ‘존경’이 유보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역시 아주 부자연스러운 논리이다. 그러나 단순히 <上位性>을 표시한다고 보면 이 현상은 쉽게 이해된다. 즉 아버지, 할머니 등의 친족명칭은 본래 상대적인 관계(신분)를 뜻하는 말로서 이미 그 자체로 상위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만 ‘대장’이나 ‘과장’ 등은 절대적인 신분을 뜻하는 명칭이므로 거기에는 화자보다 높거나 낮다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친족명칭에 붙는 ‘-님’의 의미가 항상 잉여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자가 아닌 청자의 입장에서 친족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7) ① (녀의) 형 어디 갔니? (아들에게)

② (녀의) 형님 어디 가셨니? (친구에게)

‘-님’의 의미가 <上位性>이라고 할 때 앞에서 살펴본 ‘-시-’의 의미는 본래 <上位性>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우리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시-’나 ‘-님’의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보면 결국 같은 의미가 필요없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上位性>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님’의 分布를 자세히 관찰하면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장님, 선생님, 과장님, 아버지님 등 ‘-님’이 결합되어 쓰이는 명사는 대개 대화에서 상대를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는 말들인데, 직접 부르는 호칭이 아니면서도 ‘-님’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몇 예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예는 바로 ‘부모님’ ‘스승님’ ‘임금님’ 등이다. 또한 햇님, 달님, 부처님, 하느님의 경우도 人間이 아니고 따라서 직접 호칭으로 쓰이지 않지만 ‘-님’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경우이다. 이 예들은, ‘-님’이 <上位性>을 뜻한다고 했을 때 그 <上位性>의 구체적인 의미내용이 이들 신분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면 이들 ‘부모’나 ‘스승’ ‘임금’ ‘부처’ ‘하늘’ ‘해’ 등은 모두 상대적인 신분에 대해 혹은 人間에 대해(부처, 해, 달의 경우) 절대적인 상위자로 인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신분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上位性>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

하기로 한다.

다. ‘-께서’, ‘-께’의 意味

조사 ‘-께서’와 ‘-께’의 경우도 대체적인 출현조건이나 의미는 ‘-님’이나 ‘-시-’의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시-’, ‘-님-’, ‘-께서’의 경우를 묶어 하나의 의미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경우는 현대어에서 <上位性> 표시라는 의미기능이 일치할 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즉 ‘-께서’와 ‘-께’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스’이라는 형태소의 분석이 가능하고¹⁵⁾, 따라서 세 경우 모두 특정 형태소의 첨가에 의한 규칙적인 문법 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上位性>을 표시하는 이 현상에 명칭을 붙인다면, 기존 用語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존칭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존칭’의 의미는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존자(上位者)를 칭한다”는 意味로서.

2. 동작에서의 <공손성>

이제 이른바 ‘겸양법’이나 ‘객체경어법’ 등으로 불리는 경우를 살펴 보자.

- (8) ① 철수가 친구에게 책을 준다.
 ①' 철수가 선생님께 책을 드리다.
 ② 철수가 동생을 보고~
 ②' 철수가 선생님을 뵈고~

(8)의 예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다:드리다’, ‘보다:뵈다’ 사이의 의미 차이이다. 흔히 ‘주체겸양’이니 ‘객체존대’니 하는 논란이 야기되어 온 ①', ②'의 경우는 사실 ‘겸양’도 ‘존대’도 아니다.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8)의 경우는 이미 문법현상은 아니다. 형식면에서의 규칙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用言 어간의 의미는 그 말이 쓰이는 상황과 동작의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한다.¹⁶⁾ 실제 동작을 생각해 보면 ‘주다’와 ‘드리다’의 의미 차이는 의외로 자명하다. 즉 ‘주다’가 단순히 ‘전달하다’의 의미라면 ‘드리

15) ‘-께서’를 ‘스+그+에서’로 분석했을 때, 주격이 아닌 ‘-에서’가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스-’이 뜻하는 <上位性>의 본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6) 어떤 상황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할 어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이른바 ‘主體’라는 존재인 것이다.

다’는 ‘두손으로, 공손히 전달하는’ 동작을 뜻한다. ‘보다’와 ‘뵈다’, ‘대리고’와 ‘모시고’, 그리고 ‘묻다’와 ‘여쭙다’ 등의 경우에도 모두 실제적인 동작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후자쪽이 모두 ‘공손한’ 동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드리다’ 등에서 ‘주다’ 등과 구별되는 의미자질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손성>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기존 논의들에서의 ‘겸양’이나 ‘객체존대’의 의미는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上位者에 대한 동작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 상위자를 높인 다거나 혹은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한편으로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시-’의 경우에서도 <존경>이나 <높임>이 아닌 <上位性>의 의미로 제대로 파악되었을 때 여러가지 현상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듯이, ‘드리다’ 등의 경우에도 <높임>이나 <낮춤>이 아닌 <공손>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선생이 학생집단에게 사용하는 말을 살펴보자.

- (9) 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②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쭙겠어요)
 ③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드리겠어요)
 ④ 여러분을 보고 나서 (*뵈고 나서)

(9)의 예에서 보듯이 학생들에게 ‘-시-’는 사용되지만 ‘드리다’ ‘여쭙다’ ‘뵈다’ 등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시-’와 ‘드리다’의 의미가 서로 다름을 뜻한다. 즉 ‘드리다’ 등은 ‘-시-’의 경우처럼 객체의 <上位性>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 주체의 <공손성>을 뜻하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이 집단이라 하여도 스승이 학생 앞에서 공손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다/드리다’ 등의 단어 분화가 모든 동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든 몇개의 동사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이 객체의 <上位性>이나 객체에 대한 <존경> 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들 몇 단어만 분화되었다는 것이 제대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러나 동작자체의 특징에서 이들 단어의 분화가 생겨났다고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즉 상위자 앞

에서의 공손한 동작이 비상위자 앞에서의 평범한 동작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가 바로 ‘드리다’ 등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과 중세국어의 ‘-습-’에 의한 문법현상과의 관계이다. 만약 중세국어에서 ‘-습-’에 의해 표시되던 내용이 현대국어의 ‘드리다’ 등의 의미와 마찬가지로였다면, 중세국어에서는 규칙적이던 문법현상이 왜 현대국어로 오면서 소멸되고 몇몇 어휘의 경우에만 남아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¹⁷⁾ 사실, 현대국어에서 ‘-습-’의 독립적인 기능은 소멸되었지만 그 흔적은 ‘-히니다’ 등에 분명히 남아 있다. ‘-습-’의 흔적이 남아 있는 ‘-히니다’의 의미도 물론 <높임>이나 <겸양>이 아니고 <공손>이다. 15세기 국어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先語末語尾이던 것이 語末語尾로 통합되었다는 것과 동작(주체)의 <공손>을 뜻하던 것이 진술(화자)의 공손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다.¹⁸⁾(후술)

사실 ‘드리다’ ‘뵈다’ 등의 의미를 <객체존대> 등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우선 ‘객체’라는 개념도 불투명하고, 그런 범주가 言衆의 意識에 實在한다는 것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주체겸양’이라 보는 것에도 문제가 분명하다. 上位者 앞에서 下位者가 취하는 특별한 행동(예컨대 두 손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등)의 의미가 흔히 말하는 ‘겸양’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¹⁹⁾ 상식적인 율리의식을 생각해 보아도 “윗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 “윗 사람 앞에서 겸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중세국어의 ‘-습-’이나 현대국어의 ‘드리다’ 등의 의미를 동작(주체)에서의 <공손성>이라고 보면, ‘-시-’와 마찬가지로 ‘主體’ ‘客體’ 등의 접두어는 필요가 없다. 용언 어간이나 전어말어미에 나타나는 의미가 동작(주체)

17) 우리는 그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추정한다. 첫째는 형태소의 의형적인 면을 볼 때 ‘-습-’은 ‘스, 빙, .’ 등 불안정한 음소들로 구성되어 심한 音韻變化를 겪었다는 점이다. 즉 ‘내용’을 담은 ‘그릇’ 자체가 심한 음운변화가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15세기 혹은 그 이전에는 상위자에 대한 모든 동작에서 <공손성>이 요구되고 실천되었는데, 원대로 오면서 실제 상황에서의 <공손성>이 약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의 우리의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지만, ‘-습-’의 의미를 ‘객체존대’ 등으로 보면 이런 추정조차도 어려울 것이다.

18) 이것은 실제 언어상황에서 ‘주체=화자’의 경우가 특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19) 흔히 말하는 겸양이란 오히려 上位者가 下位者 앞에서 자신의 <上位性>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과 관련되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할 뿐 아니라, ‘-시-’의 경우와는 의미 자체가 이미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3. 진술에서의 〈공손성〉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청자경어법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흔히 말하는 ‘청자경어법’이라는 것은 청자의 신분에 따라 일정한 언어형식의 쓰임이 제약되거나 혹은 언어형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예를 보자.

- (10) ① 너, 이리 오너라.
 ② 자네, 이리 오게.
 ③ 당신, 이리 와요.
 ④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10)의 예는 분명 청자의 신분에 따른 言語形式의 分化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언어형식들이 곧 청자의 신분자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하십시오’의 경우 분명 상위자인 청자에 대해 쓰이는 형태소이지만 이 형태소의 의미가 곧 청자의 〈上位性〉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상위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이나 〈존경〉의 의미도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등급설정을 비롯한 이른바 청자경어법 논의의 혼란은 바로 (10)에서의 각 형태소나 단어의 의미가 청자의 신분이나 혹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청자에 따라 언어형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달라진 언어형식들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 이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선 청자에 따라 언어 형식이 달라지는 경우를 모두 찾아 보자.

(11) 청자에 따른 언어 형식의 차이

청자 \ 내용	대답	호 칭	자칭	화자+청자 ¹	2인칭	종결어미
上位者	예	고유명사×	저	—	—	언제 <u>요</u> . 갑니다.
非上位者	응	이름 사용 철수야(균·씨)	나	우리	(자네, 당신) 너	언제. 간다.

(11)의 예들은 우선 종결어미 외에도 청자에 따라 언어형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청자의 경우에도 多分化 이전에 上位者/非上位者의 二分體系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11)의 예들에서 <非上位者位>의 경우를 기준으로 <上位者>에 대한 언어형식을 살펴 보면 거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비상위자에게는 가능한 내용이 상위자에 대해서는 쓰임이 제약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두 경우가 별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 각각의 의미를 추적해 보자.

첫째,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거나, ‘우리’라는 표현이 쓰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2인칭 대명사가 없다는 사실들은 분명 청자가 상위자임을 표시하거나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존경> 등을 뜻하는 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청자에 대한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인데 표현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현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화자의 <공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나’에 대한 ‘저’나 대답의 ‘예’ 등도 분명 청자를 높이거나 청자의 <上位性>을 뜻하는 수단이 아니라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손>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보인다. 상위자에 대한 대답에서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높이는 대답’이 아니라 <공손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상위자에 대한 진술에서 화자의 <공손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실 결코 새삼스러운 결론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늘 강조되는 것이 “윗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게 말하고, 공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종결어미의 경우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요’ ‘합니다’에서의 ‘-요’나 ‘-디니다’의 의미도 모두, 청자를 높이거나 청자의 <上位性>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공손>을 뜻한다는 것이다. 즉 “어디 가세요?”에서 청자(=주체)가 상위자라는 사실은 이미 ‘-시-’에 표시되고 있으며, ‘-요’는 결코 동일한 의미를 중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자.

첫째, ‘-요’는, ‘-시-’나 ‘-습-’과는 달리 용언의 선어말 위치가 아닌 語末에 나타나며, 용언이 아닌 명사어나 부사어 등과도 결합되는 특징이 있

다.(例: 언체요, 무얼요 등) ‘-요’가 용언이 아닌 명사어나 부사어 등에도 자유롭게 결합된다는 사실은, ‘-요’의 의미가 동작(주체)과는 무관한 것임을 뜻하며, 또한 語末 위치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 의미 내용이 話者의 意圖와 관계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칭자=주체’인 경우 ‘-시-’나 ‘-요’의 쓰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12) ① 어디 가시나?

② 어디 가요?

③ 어디 가세요?

즉 (12)에서 보듯이 주체=칭자인 경우, ‘-시-’는 쓰이지만 ‘-요’는 나타나지 않거나, ‘-요’는 쓰이고 ‘-시-’가 없거나 혹은 ‘-시-’와 ‘-요’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시-’와 ‘-요’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상식적인 윤리의식을 통한 판단이다. 즉 “공손히 말해야 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강조되는 “상위자에 대한” 규범이라는 것이다. 그런 규범이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는 수단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수단이 바로 語末에 ‘-요’나 ‘-디니다’ 등의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들 종결어미를 근거로 한 칭자경어법의 다등급설정을 간단히 비판해 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6등급 설정의 경우는 이른바 명령법의 ‘해라, 해, 하계, 하오, 해요, 하십시오’라는 6가지 언어형식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우선 이들 6가지 형식(어말어미)들이 각기 쓰이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그 영역이 곧 이들 형태소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 여섯가지 형식이 ‘命命’이라는 하나의 의미범주로 묶여야 할 근거도 없다.²⁰⁾

‘하십시오’의 의미를 命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형식이 사용되는 ‘부모’나 ‘스승’ 등의 상위자에게는 ‘높이는 명령’ 이전에 아예 命命을 하지

20) 사실 종결어미를 근거로 해서 칭자경어법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종결어미의 주 의 미기능인 서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들 6개의 어미를 묶는 ‘命命’이라는 의미범 주는 사실 영어등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국어의 의미범주는 아닐 것이다.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형식이 주로 사용되는 ‘사위’나 ‘성인의 제자’ 등에게도 실제로 거의 命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령을 아예 하지 못하는(안 하는) 상대에게 쓰이는 형태소의 의미가 ‘命命’으로 치리될 수는 없으며 더우기 그것을 바탕으로 多分化된 경어법의 등급을 설정할 수는 없다.

‘해라’의 의미가 命命이라면 ‘하계’의 의미는 ‘권유’, ‘하십시오’의 경우는 공손한 ‘부탁’ 등으로 구별되어야 마땅하다.²¹⁾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가 ‘상위자/미상위자’에 따라 각기 쓰임이 제약되거나 형식이 분화된 것을 무리하게 하나의 의미범주로 묶으려하니까 마치 청자의 경우에만 신분등급이 다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너 : 자네 : 당신 : Ø’ 등을 근거로 한 4등급 설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배 언어형식의 사용영역이 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 분화가 모두 높/낮이의 등급에 의한 분화는 아니라는 것이며, 각 언어형식의 의미가 곧 상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너, 자네, 당신’은 모두 非上位者인 상대에 쓰이는 것이며 이들의 영역이 분화된 것은 높낮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소의 정도나 상대의 절대적인 연령이나 신분 등에 의해 구별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각 형식에 들어 있는 의미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다. 예컨대 ‘자네’나 이른바 ‘하계체’의 의미는 ‘높임’도 ‘낮춤’도 아닌 화자의 <정중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아들에게는 ‘너’, 아들 친구에게는 ‘자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들이 친구보다 낮다는 뜻이 아니라, 가깝지 않은 아들 친구의 경우에는 비록 下位者라 하더라도 막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²²⁾

이처럼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분화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언어형식들을 대상으로 단지 그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유로 수직적인 등급을 설정할 수는 없다.

21) 물론 이들 각 형식은 분위(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하십시오’의 경우도 강압적인 자세로 말하면 명령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命命소 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이들 형태소의 본래 의미는 아니다.

22) 이런 현상은 언어 외의 모든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즉 자식등 용허물이 없는 상대에게는 위하지 않는 격식을, 거리가 있는 상대에게는 취한다는 것이다. 그 격식 중 上位者에게 취하는 것은 <공손>이요, 非上位者에 대한 것은 <정중>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이제까지 논의한 이른바 청자경어법에 대한 우리의 결론을 요약한다면, 우선 청자의 경우에도 기본 등급은 “上位者/非上位者”의 2분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상위자에게 쓰이는 言語形式들의 의미는 청자의 <상위성>이나 화자의 <높임>, <존경>등이 아니라 화자의 <공손성>이다. 또한 非上位者의 경우 다시 영역이 세분되고 그에 따라 언어형식도 분화된 예들이 있는데, 이 경우의 영역분화란 최소의 정도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上位者/非上位者”의 二分體系를 깨뜨리는 것도 아니고, 수직적인 등급으로 설정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상위자에 대한 언어 형식의 의미가 화자의 <공손성>이라면, 이 범주의 명칭에서 ‘話者’라는 접두어가 붙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문법현상의 명칭이 ‘話者の문법’이 아니고 ‘의문법’으로 족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Ⅳ. 너무나 간단한 결론

우선 앞장에서 논의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상기시켜 정리해 보자.

우선, 작금의 논의들에서 경어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 취급되었던 현상들은 기실 하나의 문법범주가 아니고(될 수 없고) 적어도 세가지 이상의 독립된 범주들이었다. 각각의 의미내용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각각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발화에 등장하는 人物이 상위자일 때 <上位性>을 표현하는 것이요, 둘째는 상위자에 대한 동작에서 나타나는 <공손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셋째는 상위자에게 말할 때 화자의 <공손성>이 표시되는 것이다. 이들 내용은 우리의 상식적인 윤리의식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강조되는 대인간의 倫理란 사실 “윗사람, 아랫사람을 구별하고,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히 행동하고, 공손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윤리 규범이 언어에 반영된 것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 즉 이른바 경어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현상들이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던 이유는 한마디로 몇가지 잘못된 先入見에 지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대부분의 잘못된 전제들이 <높임>이라는 부절절한 의미 파악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다. 그것은 이른바 경어법이라는 문법현상에 반영된 한국인의 意識體系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倫理意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꾀하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문법현상의 本質을 구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가 논의한 세가지 현상은 그 각각의 내용은 분명 다르지만 결국은 人間관계에서 상대적인 ‘上/非上’의 등급, 특히 ‘上位者’라는 개념이 존재함으로써 비롯된 것이었다.²³⁾ 따라서 ‘上位者’의 구체적인 개념 즉 <上位性>을 결정짓는 요인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현상들의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가 앞의 논의에서, ‘-시-’의 본래 의미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것도 <上位性>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上位性>의 本質을 추적해 보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上/非上’이라는 상대적인 등급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경우는 비교대상이 되는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라는 점이다. 즉 ‘부모/자식, 스승/제자’, ‘임금/신하’ 등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밀접한 관계란 상호 빈번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분명한 ‘上/下’ 관계가 비롯된다면 결국 ‘上/下’의 등급이란 빈번한 교류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빈번한 교류(주고 받음)의 내용이 상호 평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질 때 등급이 생겨나고, 그 중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의 사람이 곧 上位者가 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부모, 스승, 임금, 주인 등 상대방에 의해 절대적인 <上位者>로 인정되는 신분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주는(배우는) 입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직접 호칭으로 쓰이는 신분명칭이 아니면서도 <上位性>을 뜻하는 ‘-님’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말들이기도 하다. (Ⅲ장 참조) 이러한 우리의 추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결국 그것이 여러가지 현상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느냐에 의해 판정될 것이다. <上

23) 그렇다고 이들을 하나의 文法범주로 묶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Ⅲ장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位性)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주는(배우는)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은 그동안 속제로 남겨 놓았던 여러가지 현상들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첫째는, ‘했님, 달님, 부처님, 하느님’ 등에서의 ‘-님’의 사용이다. 이들 존재는 분명 人間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인화되고 절대적인 <上位者>로 인정되는 것은, 이들 존재가 바로 人間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시-’의 본래 의미에 대한 추정이다. 앞의 논의에서, ‘-시-’는 용언에 결합된다는 사실에서 그것의 본래 의미는 동작에 잇든 그 무엇일 것임을 추정한 바 있는데, 이제 그 무엇이란 바로 동작에 내포된 <授惠性>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보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나는 鄉歌 등의 借字表記에서 ‘-시-’는 ‘賜’로表記되었다는 점이다.²⁴⁾ ‘賜’의 의미는 바로 <授惠>와 通한다.²⁵⁾ 또 하나는 ‘-시-’의 語源에 관련된 문제이다. 흔히 ‘-시-’는 ‘이시-(有)’에서 由來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²⁶⁾ ‘주기’ 위해서는 우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도 쉽게 수긍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가 오신다”에서 ‘-시-’가 쓰이는 것도 비 오는 것이 농경생활을 했던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생각한다면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공손법의 논리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점이다. 즉 上位者가 무엇인가를 주는(배우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에 대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상대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즉 ‘안 가진 자(受惠者)’가 ‘가진 자(授惠者)’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이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상대에 대해 무엇인가 댓가를 생각하는 것은 윤리 이전에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된다. 上位者(授惠者)에 대한 下位者(受惠者)의 이러한 태도 즉 <공손함>이 윤리규범으로 승화되고 그것이 언어사용의

24) ‘賜’의 경우, 흔히 音借된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우리의 판단은 ‘賜’는 단순한 音借가 아니라 訓借에 가깝다는 것이다.

25) 현대국어에서는 동작에 내포된 <授惠>의 의미는 흔히 보조동사 ‘주다’로 표시된다. (예 : 먹어 주다) ‘賜’, ‘-시-’, ‘-주다’의 관계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26) 李熙舜(1956) 참조.

구적으로까지 反映된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국어의 敬語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의 추정은 더욱 보완되어야 할,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課題로 삼는다.

參 考 文 獻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10-2.
朴良圭(1975), “尊稱體言의 統辭的特徵”, 震植學報 40.
朴榮順(1985), 韓國語 統辭論, 集文堂.
徐鍾學(1985), “현대국어 敬語法에 대한 一考察” 울산어문논집 2.
成善徹(1970), “國語待遇法研究” 忠北大論文集 4.
安秉禧(1961), “中世國語의 謙讓法 研究에 대한 反省”, 國語學 11.
李翊燮(1974), “國語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國語學 2.
李翊燮,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任洪彬(1976), “尊待·謙讓의 統辭節次” 문법연구 제 3집.
_____ (1984), “聽者 待遇法上的 ‘해’체와 ‘해라’체”. 千時權博士華甲紀念國語學論叢.
허웅(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黃迪倫(1976), “韓國語待遇法의 社會言語學的 記述”. 언어와 언어학 4.